

한말~일제강점기 강릉향교의 변화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花山學校의 설립을 중심으로-

안 세 현**

< 목 차 >

I. 머리말	2. 설립 취지와 지역사회에서의
II. 갑오개혁 이후 강릉향교의 변화	갈등
III. 花山學校의 설립 과정과 지역사회에서의 갈등	IV. 맺음말
1. 설립 과정과 鄭顯東	[부록] 『花山學校雜錄』 편명 및 내용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한말~일제강점기 강릉향교의 변화 양상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갑오개혁 이후 향교 제도의 개편에 따라 강릉향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리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學部의 조치로 인해, 강릉향교는 유생을 입적하거나 입적한 유생을 교육하는 전통적인 향교 교육은 정지되었다. 그러나 祭享 기능을 유지하며 지역 유림의 교류와 결속을 다지는 구심점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였다. 더욱이 講會나 考試 등의 행사를 개최하며 교육과 학술 기관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8057497).

**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부교수 / shahn@kangwon.ac.kr

이 시기 강릉향교의 변화 중에서 본고가 특히 주목한 것은 1908년에 있었던 화산학교의 설립 과정이었다. 『花山學校雜錄』, 『遯湖遺稿』 등의 관련 자료를 통해, 화산학교가 1907년에 이미 서당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형태로 강릉향교 내에 존재하였으며, 1908년에 학부의 <사립학교령>이 공포되면서 정식 설립 절차에 들어가 1909년 봄에 개교하였음을 밝혀내었다. 아울러 학교의 설립을 주도하였던 鄭顯東(1850~1921)이란 인물의 인적 사항과 행적을 최대한 추적하였다. 정현동은 양양을 대표하는 유림인데 학자로 이름이 나서 화산학교의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학교장이자 일족인 鄭顯運(1843~1913)의 후원 아래 화산학교의 설립을 주도할 수 있었다.

특히 화산학교는 설립 과정에서 강릉 지역 신식학교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지역 사회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화산학교는 전통 서당식 교육에 신식을 가미한 학교로서, 서구식 근대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기치로 내걸었던 신식 사립학교와는 성격을 달리했기 때문이었다. 곧 화산학교는 신학문과 구학문의 갈등, 신학교와 구학교의 대립 등을 겪으면서 설립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강원도, 강릉향교, 화산학교, 정현동, 조익환, 화산학교잡록

I. 머리말

본고는 조선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강원 지역에서 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교 문화가 지역 문화의 형성과 기능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탐색하는 장기 기획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그간 조선 전·중기에 향교와 향약이 강원 지역에 정착되어가는 과정, 조선후기 강릉향교의 석전제 제수를 둘러싸고 중앙과 지역이 충돌한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¹⁾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고에서는 한말~일제강점기 강원도 강

1) 안세현, 「강원 지역의 유교 문화와 지역성-향교·향약의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東아시아古代學』 31, 東아시아古代學會, 2014; 「조선후기 향교의 지역성-정조 연간 강릉향교의 석전제 祭需 사건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36, 한국한문고전학회, 2018.

릉향교의 변화 양상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에 향교는 지역 유생의 교육뿐만 아니라 유림 세력의 결집과 여론 형성의 중심점이 되면서 향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1894년 갑오개혁으로 禮曹가 폐지되고 學務衙門이 창설되면서 지방의 향교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적 기능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또한 과거제가 폐지됨에 따라 향교에 입적하는 유생의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갑오개혁 이후 국문 또는 국한문체가 통용되면서 한문은 공식 언어로서의 권위에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심지어 한문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까지 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친일 내각이 들어서고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늑약을 거쳐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조선은 일제의 통치 내로 들어갔다. 사상적으로 성리학적 의리와 尊華攘夷의 華夷論으로 무장한 유교 지식인들에게 '夷'인 일본의 지배권 내에 든다는 것은 만주족인 청나라가 중국을 차지한 것 이상의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한말~일제강점기'의 시기는 유교 지식인들에게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충격과 도전의 시기였던 것이다.

본고는 중앙보다는 지역에, 집단보다는 개체에, 제도보다는 사건과 일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갑오개혁 이후 과거제의 폐지와 향교의 직제 변화, 향교의 교육 기능 상실과 근대식 학교의 신설, 국문의 부상과 한문의 위상 추락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중앙 주도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지역의 향교와 유림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²⁾

이 시기 강원 지역의 유림 활동은 여타 지역 못지않게 활발하였다. 단적으로 1895년 명성왕후 시해와 단발령의 강제시행으로 촉발된 을미의병은 경기·충청 지역과 함께 강원 지역의 유림에 의해 시작되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華西 李恒老의 문인 李昭應이 의병을 일으켰으며, 강릉에서는

2) 이런 점에서 19~20세기 지방 유림의 다양한 삶을 탐색한 다음의 연구는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 권오영, 『근대이행기의 유림』, 돌베개, 2012.

復齋 閔龍鎬가 중심이 되어 嶺東九郡倡義陣이 편성되기에 이르렀다. 한말에 강원도는 화서학파의 문인을 중심으로 위정척사 활동과 의병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이었던 것이다.

특히 강릉은 조선시대부터 강원도의 여러 시군 중에서도 유림 세력이 가장 강했던 곳이다. 단적으로 강릉은 문과 급제자가 강원도의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³⁾ 조선전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풍속’조를 보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강릉에서 “학문을 숭상하며 예의를 서로 먼저한다.”고 기술되어 있다.⁴⁾ 서원도 강릉에 오봉서원과 송담서원 두 곳이 있을 뿐 강원도의 여타 지역에는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강릉 지역의 향약이나 유림 활동에 관해서는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으나⁵⁾, 한말~일제강점기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한말 민용호를 중심으로 한 강릉 유림의 의병 활동⁶⁾이나 1909년 강릉향교의 명륜당에 설립되었던 화산학교에 관한 연구⁷⁾가 있었다. 1930년대 강릉고적보존회의 활동을 고찰하거나⁸⁾ 1940년대 관동명덕회의 친일한시 창작에 대해 연구한 사례가 더러 있을 뿐이다.⁹⁾ 하지만 화산학교의 설립 과정, 강릉고적보존회의 구성, 관동명덕회의 활동과 역사적 평가 등

3) 조선시대 강원도 영동지방(현 경북 울진 포함) 9개 군현에서 총249명의 문과 급제자가 배출되었는데 그 중 60%가 넘는 150명이 강릉 출신이다. 삼척과 평해가 각각 23명, 양양이 22명 정도였다. 『강릉향교칠백년사지』, 강릉향교, 2013, p.149.

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풍속’조. “尙學問”, “禮義相先.”

5) 주로 이규대 교수와 임호민 교수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주요 논저는 <참고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6) 이청희, 「復齋 閔龍鎬의 義兵活動」, 『영동문화』 6,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85; 박민영, 「閔龍鎬의 江陵義兵 抗戰에 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1.

7) 금창현, 「강릉 화산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영동문화』 8,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2001.

8) 장정룡, 「일제강점기 강릉고적보존회 역할과 고전출판」, 『강원학비전포럼자료집』, 강원발전연구원, 2006.

9) 한길로, 「일제 말 지방 유림의 동향과 친일시의 국면-강릉 유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60, 성균관대인문학연구원, 2016.

에 대하여 여전히 밝혀야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본고는 한말~일제강점기 강릉향교와 강릉 지역 유림의 활동 중에서, 우선 갑오개혁 이후 강릉향교의 변화 양상과 화산학교가 지역 사회와의 갈등 속에서 설립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갑오개혁 이후 강릉향교의 변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향교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갑오개혁 이후 1910년 한일병합까지 성균관 및 향교의 제도 변화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⁰⁾

연월일	근 거	내 용
1894.07.20.	勅令 제12호	-禮曹를 폐지하고 學務衙門을 창설. 학무아문에 總務廳, 成均館及庠序事務局, 專門事務局, 普通學校局, 編輯局을 둠.
1895.07.02.	勅令 제136호	-成均館의 長1人 學部奏任中兼, 敎授2人 奏任或判任, 直員2人 判任을 둠. -성균관은 文廟을 虔奉하고 經學科를 肄習함.
1899.03.24.	勅令 제8호	-成均館의 博士를 정원 외에 各道宿學老儒及被薦人으로 順次敍任하되 매년 30人を 넘지 않게 함.
1905.02.26.	勅令 제23호	-成均館은 學部大臣의 관리에 속하게 하여 문묘를 虔奉하고 경학과를 肄習하는 처로 함.
1906.08.27.	勅令 제40호	-成均館을 學部直轄學校에 편입함.
1907.12.13.	勅令 제54호	-學部는 학무국, 편집국 2局으로 통합하고 다른 기구는 폐지함. 학무국의 사무로는 '師範教育普通教育及幼稚園實業教育及專門教育各種學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기함.
1908.10.29.	勅令 제76호	-成均館制度改正件 中 제10조에 各府郡鄉校에 直員을 任置하고 종전의 掌議 齋任 등은 폐지함.

10) 한말 학제 개편과 향교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강대민, 『한국의 향교 연구』, 경성대 출판부, 1992, pp.282-291 참고.

연월일	근거	내용
1909.09.24.	告示	- <small>鄕校掌議等 任命 廢止의 件</small> : 종전의 향교 임원인 掌議 齋任 등을 폐지하고 直員을 任置함.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분을 가하겠으니 各府郡에서 즉시 시행해야 함.
1910.03.03.	訓令	- <small>鄕校財産 및 事務에 대한 學部大臣 訓令</small> : 향교 直員의 권한은 文廟를 職守하며 교내 庶務에 종사하는 것임. 혹 향교의 재산을 제멋대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며, 재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本府의 指揮를 승인 받아야 함.
1910.04.28.	訓令	- <small>鄕校直員의 職責에 對한 學部訓令</small> : 향교직원은 향교의 제반 업무에 관하여 지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1894년 학부의 칙령에 따라 성균관과 향교 두 기관을 學務가 아닌 事務의 업무로 편입시켰다. 이를 통해 성균관과 향교가 가지고 있던 교육과 학술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907년에는 학부에서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를 담당할 전담 부서를 폐지하였다. 그래도 성균관의 경우 經學科를 두어 교육 기능을 일부 남겨놓거나 각도의 유림을 博士로 임용하는 등 일련의 유림 유화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방의 향교는 교육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春秋釋菜와 朔望焚香을 거행하는 祭享 기능만 남겨지게 되었다. 더욱이 1908~1910년 사이에 학부에서 향교 임원의 임면과 재정 등 향교의 운영 전반을 지방관의 지휘 감독 하에 두었다. 종전에는 지역 유림의 추천에 따라 都有司를 비롯한 掌議齋任 등이 임명되고, 향교의 재산을 이들의 관리 하에 맡겨두었다. 향교에서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유림의 자치권까지 박탈함으로써, 의병 활동의 구심점이었던 향교와 지역 유림을 약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강릉향교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단적으로 1933년에 간행된 『江陵鄕校實記』의 「沿革」을 보면, 1905년까지는 都有司, 掌議, 有司 등 향교 임원 명단을 기록하다가, 1905년에 임명된 마지막 도유사인 '鄭中時' 이후로는 도유사 대신 강릉군수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곧 향교의 책임자가 향교의 임원이 아니라 군수임을 명기한 것이다. 갑오개혁 이후 일제강점기 강릉향교의 주요 연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¹⁾ 일상적인 건물의 보수나 석전제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였다.

연도	주요 연혁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본 향교에서의 교육과 유생들의 입교도 폐지됨.
1908년	-2월에 공자의 聖像 보존이 잘못되는 변고가 발생하여 士林이 명륜당에 모여 회의를 열고 성군관에 보고함. ¹²⁾
1909년	-향교의 명륜당에 花山學校를 설립하고 學部の 승인을 얻었으며 학교의 재정은 향교의 재산으로 충당함.
1911년	-화산학교를 폐지하고 향교에 養蠶傳習所를 설립함.
1913년	-2월 丁享 전일에 伊藤 교장이 공자 畫像을 모셔 龕室에 봉안하고, 수백 명의 士林이 巾服을 정제하고 參謁하며 奉安祝文을 고함.
1917년	-9월에 經學院 부제학 李容植과 江原道 講師 鄭鳳時가 명륜당에서 강연을 하고 律題로 考試하여 많은 선비를 뽑아 시상함. -이튿날에는 공립 강릉보통학교에서 백일장을 열었는데 여러 고을에서 참여자가 몰려옴.
1918년	-양잠전습소를 폐지함.
1920년	-士林의 성금을 모아 祭器庫를 수리함.
1922년	-명륜당에 首善講習所를 설치하고 ¹³⁾ 명륜당 네 벽을 유리창으로 바꿈.
1924년	-天雲池를 파서 紅白蓮을 심음. -8월 27일에 聖誕祝賀式을 거행함. -養老會를 개회하고 명륜당에서 重修落成式을 거행함. 이때 天雲池律題로 선비들을 고시하였는데, 경학원 司成 金完鑣이 와서 試官을 맡았고 直員 崔命수가 기문을 지음.
1925년	-경학원 부제학 鄭萬朝가 『江陵鄉校重修記』를 지음.
1928년	-명륜당에 공립 강릉농업학교를 임시로 개교함.
1930년	-향교의 재산으로 鄉賢祠의 享祀 비용을 보조함.
1932년	-향교의 재산으로 五峯壇所, 松潭廟所, 榆川影堂의 享祀 비용을 보조함 -愚伏鄭先生興學碑를 改建하고 『增修 臨瀛誌』와 『江陵鄉校實記』를 編成함.
1938년	-4월 23일 향교에 강릉상업고등학교 개교하고 이듬해인 1939년 9월 1일에 현위치로 이교함.
1940년	-4월 24일에 강릉여자고등학교가 향교에 개교하여 1942년 12월 3일에 현위치로 이교함.
1943년	-7월 6일 옥천국민학교가 향교에서 개교하여 1944년 8월 9일 현위치로 이교함.

11) 『江陵鄉校實記』(강릉고적보존회, 1933)를 비롯하여 『증보 강릉향교지』(강릉향교, 2009), 『강릉향교칠백년사지』(강릉향교, 2013) 등의 연혁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2) 1908년 강릉향교에서 발생한 孔子 影幀 도난 사건을 말하는데, 관련 내용이 황

법적으로 향교를 군수의 지휘 감독 하에 두었지만, 강릉향교는 지역사회에서 유림의 구심점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였다. 석전제 등의 祭享에 지역 유림이 꾸준히 참여하였으며, 향교의 중요 사안이 발생하면 유림이 모여 회의를 하여 결정하였다. 1908년 공자 영정이 도난당했을 때의 사건 대응과 1913년 영정을 다시 봉안할 때의 의식 등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강릉향교는 鄉賢祠와 五峯壇所松潭廟所 등의 제향을 재정적으로 꾸준히 지원하였으며, 지역 유림의 찬조를 받아 향교의 건물을 개수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하였다. 1917년에는 성균관 부제학과 강원도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유림을 대상으로 考試 행사를 갖기도 하였다. 특히 1924년에는 聖誕祝賀式, 重修落成式 등을 겸하여 養老會를 개최하고 經學院 司成 金完鎭을 試官으로 지역 유림을 考試하였다. 경학원 부제학 鄭萬朝(1858~1936)는 「江陵鄉校重修記」에서 다음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였다.

- ① 옛것을 계승하면서도 새것을 시도하였는데, 화려하나 사치스럽지는 않고 검소하나 촌스럽지는 않았다. 같고 닮아 건물을 세우며 튼튼하게 해서 허술하지 않도록 힘썼다. 게다가 못을 만들어서 꽃과 나무를 반듯하게 심어 놓았다. …… 낙성식 날에 선비와 백성이 운집하여 문예를 겨루어 시상을 하고, 고아한 음악을 연주하여 흥을 돋우었다. 나이 많은 이들이 燕毛의 자리(의식 후의 飲福宴)에 먼저 오르고 젊은이들은 기예를 펼쳐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리하여 모두들 한껏 만족하였으니 藹然히 舞雩에서 바람 쐬고 沂水에서 목욕하는 모습이 있었다.¹⁴⁾

정만조는 향교를 중수하며 天雲池를 새롭게 판 것을 특별히 언급하였다. 향교에 못을 파고 연꽃을 심은 것은 다른 지역의 향교에서는 보기 드

현의 『梅泉野錄』卷6에도 언급되어 있다.

- 13) <동아일보> 1922년 7월 7일 “江陵鄉校講習所開始”에 관련 내용이 소개되었다.
14) 鄭萬朝, 「江陵鄉校重修記」, 『江陵鄉校實記』, 「文類」, 장31. “仍是舊而新是圖, 華不至侈, 儉不至陋, 磨礪揅策, 務增鞏密, 加之池菘, 花木位置井井. …… 落之日, 士民雲集, 戰文藝而行賞, 鼓雅樂而助歡, 老者先登于燕毛, 少年演奇而感人, 莫不充然自得, 藹然有風雩沂之像焉.”

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현재 천운지는 강릉향교의 오른쪽 별도의 구역에 위치해 있는데, 천운지 앞에는 향교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제향의례를 할 때 祭官들이 머무는 天雲精舍가 위치해 있다.

다음으로 특기한 것은 경학원 司成 金完鎭이 試官을 맡아 천운지를 詩題로 하여 지역 유림의 詩才를 겨룬 일이다. 당시는 향교에서 더 이상 齋生을 선발하지도 재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이는 일도 없었다. 이날 考試 행사는 과거 향교에서 행했던 교육 활동을 재현해본 셈이다. 정만조는 養老會 역시 비중 있게 거론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풍속’조에 강릉에서는 “靑春敬老會를 행한다.”¹⁵⁾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강릉 지역에서 양노회는 역사가 깊은 전통이었다.

이처럼 강릉향교는 祭享과 考試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의 유림이 교류하고 결속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1933년에 강릉고적보존회에서 『江陵郡校實記』를 간행한 것은 강릉 지역에서 향교를 기반으로 한 유림의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에는 道統圖로부터 향교의 재산연혁에 이르기까지 향교와 관련된 사항이 망라되어 있으며, 강릉향교와 관련된 글들이 「文類」에 시대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주요 편자로 유림 金秉煥(1871~?)과 朴元東(1873~1949)의 이름이 올라 있는데, 이들은 1930년대에 강릉향교의 直員을 역임하였다.¹⁶⁾ 곧 강릉고적보존회의 결성과 『강릉향교실기』의 편찬을 통해, 향교를 기반으로 한 지역 유림이 문화유산의 정리 및 보존으로까지 활동의 폭을 넓혔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지역에서의 교육적 역할 역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09년 화산학교를 시작으로 1911년 양잠전습소, 1922년 수선강습소, 1928년 농업고등학교 등이 강릉향교에 설립·운영되었다. 1938년 상업고등학교,

1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풍속’조. “靑春敬老會：邑俗敬老，每值良辰，請年七十以上，會于勝地以慰之。”

16) 『증보 강릉향교지』의 역대 임원 명단에 의거하면, 朴元東은 1933년 直員에 취임하여 2년간 임기를 수행하였으며, 박원동을 이어 金秉煥이 1935년에 취임하여 1년간 임기를 채웠다.

1940년 강릉여고, 1943년 옥천국민학교 등은 향교에서 개교하여 학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물론 1911년 양잠전습소 이래 교육 기관들은 모두 일제의 정책에 의해 설립된 서구식 실용 학문을 가르치는 신학교들이다. 비록 향교의 전통적인 교육 기능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능을 꾸준히 수행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Ⅲ. 花山學校의 설립 과정과 지역사회에서의 갈등

한말에 신설된 서구식 신식학교로는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宣敎學校, 갑오개혁 이후 新學制의 제정으로 생겨난 官公立學校, 그리고 1905년 이후 教育救國의 기치를 걸고 생겨난 私立學校 등이 있다. 지역의 유림 역시 1905년 이후 향교 내에 신학문을 교육하기 위한 부설 사립학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경남 밀양향교에 부설된 進成學校, 동래향교의 明倫學校 등이 그 중 하나이다.¹⁷⁾

당시 강릉에도 여러 사립학교가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운정동 선교장의 주인이었던 李根宇가 1900년 전후에 東進學校를 설립하였다. 1905년에는 瀛州學校, 1908년에는 望祥學校, 1909년에는 茅山學校, 1909년에는 新里學校 등이 설립·운영되었다.¹⁸⁾ 이들은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서구의 신학문을 가르치는 서구식 근대학교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09년 전통 유교 교육의 기치를 걸고 강릉향교에 화산학교가 설립되었다. 화산학교는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들 속에서 지역의 유림이 전통 향교 교육의 변신을 시도한 것이다. 비록 일제의 조치와 제정난 등으로 1911년에 폐교되었지만, 경남 지역의 향교에 부설된 신식학교와도 성격을 달리하는 특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17) 경남 지역의 향교에 설립된 신식학교에 대해서는 강대민, 앞의 책, 1992, pp.291-308 참고.

18)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강릉시)>의 '독립운동가(강릉) 조.

현재 『花山學校雜錄』이라는 자료가 전하고 있어서 화산학교의 설립 취지와 學規 등을 알 수 있다.¹⁹⁾ 『花山學校雜錄』에는 20여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서두의 「趣旨書」를 비롯하여 대부분은 글은 학교 설립을 주도 하였던 鄭顯東(1850~1921)이 작성한 것이다. 작성 시기는 1908년 음력 8~10월이며, 화산학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고 한시도 2편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글들은 모두 한문으로 작성되었는데, 「趣旨書」·「勸告文」·「花山學校請助文」·「各支會勸諭文」·「花山學校趣旨」 등처럼 지역의 인사들에게 화산학교의 취지를 알리고 동참을 촉구하는 글들은 한문에 현토를 달았다. 『화산학교잡록』에 수록된 글에 대해서는 <부록: 『화산학교잡록』 수록 편명 및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금창현은 이 자료에 근거하여 화산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학계에 보고한 바 있다.²⁰⁾ 본고에서는 이 선행 연구를 참고하면서 화산학교의 설립 과정에 대해 새롭게 찾아낸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설립 과정과 鄭顯東

1975년에 간행된 『臨瀛(江陵溟洲)誌』에서 “花山學校는 鄉校 明倫堂에서 1909년 鄭顯東이 설립하고 새 교육을 가르치다가 강제 폐교되었다.”²¹⁾라고 하여, 설립연도와 설립자를 처음으로 동시에 언급하였다. 그런데 손중환은 1993년 강릉문화원에서 간행하는 잡지 『臨瀛文化』에서 “강릉향교에 1908년에 鄭顯東이 향교 재정으로 설립하였다.”²²⁾라고 하였다. 기타 『강원도사』

19) 『花山學校雜錄』은 필사본 1책 18張으로 소장자는 강릉시 교2동의 金鳴起씨이다. 이 자료는 방동인·이규대 공편, 『영동지방향토사연구자료총서』 3(書院·學校 2),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94, pp.131-166에 영인 수록되어 있다. 다만 「學規」의 1면 정도가 영인본에는 누락되어 있다. 영인본 뒤에는 화산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글 몇 편을 組版本의 형태로 함께 수록되어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20) 금창현, 앞의 논문, 2001, pp.165-190.

21) 『臨瀛(江陵溟洲)誌』, 임영지증보발간위원회, 강릉시·명주군, 1975, p.149.

22) 손중환, 「강릉 3·1 독립운동의 조명(II)」, 『臨瀛文化』 17집, 강릉문화원, 1993. 금

(강원도, 1995)나 『강릉시사』(강릉문화원, 1996)에서는 1909년에 설립되었다고 하였을 뿐, ‘賓顯東’이란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강릉시)의 ‘화산학교’조에는 설립자 이름 없이 1909년에 설립하였다고 한 반면, ‘독립운동가조’에는 강릉 지방의 사립 신교육 기관을 소개하며 “1908년 정현동이 교동 향교에 설립한 화산학교”라고 하였다.

금창현은 『화산학교잡록』에 수록된 취지서 등이 1908년에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1908년은 설립을 위한 기초 작업의 시기이고 1909년 개교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²³⁾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현동에 대해서는 “화산학교 개교의 주역으로 草溪가 본관이고, 강릉지방의 유력자 혹은 지식인일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행적은 찾기가 어렵다.”²⁴⁾라고 하였다.

화산학교 설립연도와 관련하여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화산학교잡록』(1908)과 『강릉향교실기』(1933) 등이다. 『강릉향교실기』의 「연혁」에는 화산학교가 1909년에 설립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²⁵⁾ 또한 강릉의 유학자 沈一洙(1877~1952)의 문집인 『遯湖遺稿』 권1, 「日記」의 1909년 음력 윤2월 9일(양력 3월 30일)에 “화산학교가 개학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⁶⁾

그런데 왜 1908년 설립설이 제기된 것일까. 『화산학교잡록』에 수록된 趣旨書, 學規 등이 1908년에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화산학교잡록』은 1908년 음력 8~10월에 작성된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맨 앞에 실려 있는 「趣旨書」에 “금년(1908) 봄에 학부로부터 국학과 향교에 학교를 개설”운운하였다.²⁷⁾ 또 「各支會勸諭文」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창현, 앞의 논문, 2001, p.170에서 재인용.

23) 금창현, 앞의 논문, 2001, p.171.

24) 금창현, 앞의 논문, 2001, p.173의 주석 18번.

25) 『江陵鄉校實記』, 「沿革」. “隆熙三年己酉(1909), 設花山學校于明倫堂, 自學部承認, 以校財用費.”

26) 沈一洙, 『遯湖遺稿』卷1, 雜著, 「日記」, 張12. “花山學校開學.” 『遯湖遺稿』는 강릉의 유학자 沈一洙의 문집으로, 1961년 江陵의 檜裸書屋에서 연활자 1권 1책으로 간행되었다.(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이 문집의 雜著에는 1905년부터 1950년대까지의 일기가 수록되어 있어 한말~일제강점기 강릉 사회를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

- ② 지금 학부에서 <사립학교령> 및 <서당령>을 제정하였는데, 학교 중에 완전한 것은 장려하고 폐단이 있는 것은 바로잡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書堂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受業하고 新式을 더하라고 하니 참으로 시의 적절합니다.²⁸⁾

인용문 ②는 강원도 각 군의 향교에 보낸 권유문으로, 새롭게 학교를 설립하는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과 지원을 요청한 글의 일부이다. 글의 수록 순서와 내용으로 볼 때 1908년 음력 9월말에서 10월초에 작성된 것이다. ②에서 언급한 '<사립학교령> 및 <서당령>'은 1908년 8월 26일(음력 7월 30일) 반포되고 이해 10월 1일(음력 9월 7일)부터 시행되었던 <사립학교령>을 말한다. <서당령>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닌데, 다만 <사립학교령>의 마지막 제15조에 “本令은 書堂에 適用치 아니함²⁹⁾”이라 하여 서당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 있었다.

<사립학교령>은 190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사립 학교가 크게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 시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폐교를 명령할 수 있었다.³⁰⁾ ②에서 “완전한 것은 장려하고 폐단이 있는 것은

27) 『화산학교잡록』, 「趣旨書」, pp.132-133. “何幸今春에 自學部로 以開學于國學郡校 訶야 修先王之政訶며 明先聖之道之意로 訓務이 嚴切鄭重訶니 曷敢不鼓舞而興起也哉아” 제목을 ‘戊申趣旨書’라고 썼다가 ‘戊申’에 삭제 표시를 하였다. 무신년은 1908년임.

28) 『화산학교잡록』, 「各支會勸諭文」, p.161. “現自學部로 制定私立學校與書堂令中에 學校之完全者는 獎勵하고 有弊者는 矯正이라하며 書堂則仍舊受業하고 施加新式이라하여시니 亦合於時機之所宜也라”

29) 『한국근대사기초자료』 2(국사편찬위원회, 2010), II. 교육제도의 정비 '23. 사립학교령'(『관보』 융희 2년(1908) 9월 1일) 참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제공)

30)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목적·위치·학칙을 비롯해 교사·교사의 평면도, 1개년의 수지예산 및 유지 방법, 설립자 및 교직원 이력서, 그리고 교과용 도서명 등이었다. 아울러 각종 규제 조치를 학부령으로 공포하였는데 「敎科用圖書檢定規程」을 두어 교과서를 학부의 검정을 받게 했으며, 1909년 2월 27일자로 「寄附金募集取締規則」을, 같은 해 4월 1일자로 「地方費法」을 공포하여 사립학교 재원을 차단하였

바로 잡는다" 운운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결국 강릉 지역에서 학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는 동진학교(1909.6.4.), 모산학교(1909.3.26.), 신리학교(1909.9.21.) 세 곳 뿐이었다.³¹⁾

다만 <사립학교령> 제15조에 명기되어 있듯이 서당은 예외였다. 화산학교는 바로 이 예외 조항에 의거하여 정식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 『화산학교잡록』을 근거로 하여 1908년 화산학교의 설립 추진 과정을 재구하면 다음과 같다.

월일 (양력)	내 용	「화산학교잡록」 관련 기록
봄	-學部로부터 국학(성균관)과 향교에 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함.	-「趣旨書」
8월 26일	-學部에서 <私立學校令>을 반포하여 사립학교의 설립과 인가를 규제하되, 書堂 교육은 그대로 존치함을 공포함.(시행 10월 1일)	-「各支會勸諭文」
9월 19일경	-<사립학교령>의 반포 후 강릉향교에서 同社 모임을 가졌는데, 이때 鄭顯東이 취지서를 작성하여 공포하고 權鍾珪崔容可金演性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함. -발기문에서 15세 이상으로 儒學에 뜻을 둔 자들의 입학을 촉구함. -이때 설립 성금으로 1천환을 모금함.	-「勸告文」, 「花山學校請助文」, 「寄同社諸君」
9월 하순	-발기인 모임 후 學規(입학 자격, 학교 조직, 학업 태도, 학생 규범), 독서 목록 등을 마련함. -중국 백록동서원의 학규에 해당되는 「白鹿洞院揭示」를 참고함.	-「學規」, 「讀書次第」, 「白鹿洞院揭示」
9월 19일 및 24일	-9월 19일에 社友를 통해 화산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主事 曹益煥의 편지를 받음. -9월 24일 답장을 보내 구학문을 위주로 하는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를 해명함.	-「答曹主事益煥書」(1)
9월 25일	-주사 조익환으로부터 두 번째로 편지를 받았는데, 첫 번째 편지와 마찬가지로 구학문을 가르치는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내용임.	-「答曹主事益煥書」(2)

다. 신설되는 학교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결국 1909년 4월 말까지 인가를 청원한 총1,708개 학교 중 인가를 받은 곳은 242개교에 불과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립학교령' 조)

31) 『강릉시사』, 강릉문화원, 1996, p.486.

월일 (양력)	내 용	「화산학교잡록」 관련 기록
10월 초순	-주사 조익환에게 답장을 보내 구학문과 신학문의 절충을 내세워 조익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함.	-「答曹主事益煥書」(2)
10월 4일	-同社의 諸君들에게 편지를 돌려 西勢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유학을 지켜내자고 역설함.(화산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同社 諸君들은 이에 흔들리지 말고 뜻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한 것임.)	-「寄同社諸君」
10월 중순~ 11월 초순	-강릉군 내 15개면 8천호에 講助文을 보내 학교 설립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함. -강원도 각 군의 향교에 勸諭文을 보내 학교 설립의 배경을 설명한 후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함.	-「花山學校講助文」 -「各支會勸諭文」

<사립학교령>의 반포가 8월 26일, 시행이 10월 1일부터이고, 『화산학교잡록』에 수록된 글들은 양력으로 치면 8~11월 사이에 작성된 것이다. 화산학교는 1908년 8월 26일 반포되었던 <사립학교령>을 법적 근거로 하여 9월 중하순부터 본격적인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1월까지 학교 설립의 취지를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설립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였다. 개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화산학교는 1909년에 설립되었으며 1908년은 설립을 추진한 해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그런데 아래의 인용문 ③과 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산학교잡록』에는 '花山學校', '花山校' 등의 교명이 여러 곳 등장한다. 1909년에 개교한 '花山學校'를 가리키는 것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 ③ 이듬해 淸年인 무신년(1908) 음력 9월 8일에 涉重溟이 강릉경찰서에 이르러 제사를 올리며 애도하였다. 헌병 2개隊가 연극을 펼치고 公立普通學校와 東進學校 2개교가 운동회를 개최하여 이에 보답하였다. 大韓人 花山校 講師 鄭顯東은 이 소식을 듣고 삼가 同社人 金元卿을 보내 영전에 고한다.³²⁾

32) 『화산학교잡록』, 「警察署追悼文」, p.143. “以翌年青年戊申九月八日, 涉重溟到本署, 祭而悲, 憲守兩隊設大演劇, 公東二校開大運動以侑之. 大韓人花山校講師鄭顯東, 聞其言而壯之, 敬遣同社人金元卿告于靈筵之前.” ‘花山校講師鄭顯東’은 저본에 ‘花

- ④ 어제 경찰서에서 本校의 三任에게 청첩장을 보냈는데, 곧 故 警時 岩元義 行의 暮年日을 추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일은 음력 8일】 學校에서는 이전의 편지에서 초청하는 내용이 없었던 것을 혐의로 여겨서, 곁에 있던 主事 崔在璘에게 부탁을 하니 한잔 술에 몇 줄의 글을 지었습니다. 이에 學徒를 보내 齋任을 수행하고 가서 조문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³³⁾

인용문 ③은 1908년 음력 9월 8일(양력 10월 2일) 경에 강릉경찰서 涉重 溟의 요청을 받아 지은 故 강릉경찰서 보좌관 警視 巖元義行的 1주기 추도문의 일부이다. 인용문 ④를 볼 때, 이 추도문을 실제로 지은 사람은 主事 崔在璘이었다. 최재린은 1874년 생으로 본관은 강릉이고 거주지 역시 강릉이며, 1894년(고종 31) 진사에 합격하여 法部主事를 역임한 바 있다.³⁴⁾

③에서 鄭顯東은 스스로를 ‘大韓人 花山校 講師’라 칭하였으며, ④에는 ‘學校’와 ‘學徒’라는 명칭이 나온다. 1908년 음력 9월에 이미 강릉향교에 ‘花山學校’가 있었고 그 학교에 ‘學徒’가 있었던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화산학교’는 학부의 인가를 받아 1909년에 개교한 ‘화산학교’와는 다른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 ⑤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병오년(1906) 음력 10월 저를 찾아와 먼저 우의를 베풀어 주셨으니, 뒤라 형용하지 못할 정도로 황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더욱이 저에게 敎導와 裁正을 맡기셨는데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저 東顯은 노둔한 자질로 태어나 운명이 기박하여 어릴 적 父師의 가르침을 제

山校○鄭顯東’으로 되어 있고 ‘○’ 자리에 ‘講師’를 작은 글씨로 보충해 써 넣음. ‘公東二校’에서 ‘公’은 1895년 「小學校令」에 의해 1896년에 개교한 公立 江陵普通學校를, ‘東’은 사립학교인 東進學校를 말함. 추도식에서 헌병대가 연극을 공연하고, 공립 강릉보통학교와 사립 동진학교가 합동 운동회를 개최한 것이 흥미롭다.

33) 『화산학교감록』, 「呈石荷書」, p.148. “昨自警署請牒于本校三任, 卽故警視岩元義行復矢之暮年日追悼事也. 【陰初八日】 學校則有嫌於前日之書招不有書來, 傍請于崔主事在璘, 而一杯酒數行文, 送學徒隨齋任往弔爲議耳.”

34) 『사마방목』에 최재린의 아버지는 崔允龍, 生父는 崔允鼎으로 되어 있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과거 및 취재’의 ‘[進士] 崔在璘’조.) 『승정원일기』 1902년(고종39) 6월 22일조에 최재린을 法部主事に 임용한다는 기사가 보인다.

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곤궁하고 외롭게 지내다 보니 또한 제대로 봉우를 사귀지도 못하였습니다. 늘 마음속에 의리를 망각하고서 나라가 망해가는 세상을 더욱 한탄하였습니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우시어 학교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품兄(곧 조익환)께서는 구학문의 體를 터득하신데다 신학문의 用에 대해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으셨기에, 뜻있는 몇몇 선비들을 이끌어서 瀛校를 창립하였습니다. 불행이 한마디 말로 인해 일이 잘못되어서 창대하게 시작하였으나 미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비록 뜻있는 선비들이 심히 안타까워하였으나 體를 잃고 用을 힘썼으니 이단을 공부하는 것은 해로울 뿐이라는 비난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윽고 東進學校는 신학문을 회복하고 花山學校는 구학문을 닦으며 시세를 타고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體와 用이 서로 보완해주고 시기와 조치가 모두 적절함을 얻었으니, 貴鄉(곧 강릉)을 위해 앞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두 손 모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嚮論이 어긋나고 바르지 않아 저의 蔑學을 개의치 않고 그저 學行이 있다는 명성만 가지고서 먼저 동진학교로 하여금 저에게 會務를 요청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단체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사양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화산학교에서 저를 試教로 이끌었습니다. …… 사양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참으로 洛媪의 비웃음을 면치 못하리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시교를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고을의 진중한 예에 보답을 하고 성대하고 화목한 모습을 보고자 하여 오게 되었습니다.³⁵⁾

35) 『화산학교잡록』, 「答曹主事益煥書」(八月二十九日), pp.144-145. “丙午小春, 左顧之虛, 至承先施, 悚惶忸怩, 無容爲喻. 且責之以教導, 任之以裁正, 蹙然惕然, 無以措躬爲也. 顯東以篤下之質, 賦命奇薄, 少失父師之教, 窮居離索, 又乏朋友之資, 恒以茅塞之心, 益嘆鞠草之世. 天佑我韓, 學校大興, 而吾兄有得於舊學之體, 而先有見乎新學之用, 誘掖多少志士, 勸立瀛校. 不幸一言債事, 張始縮終. 雖切有志之嘆, 失體攻用, 不無斯害之譏矣. 既而東進復新, 花山修舊, 鵲起而蟬連, 體用相須, 時措得宜, 前途幸福, 未嘗不爲貴鄉攢賀萬萬矣. 既而東進復新, 花山修舊, 鵲起而蟬連, 體用相須, 時措得宜, 前途幸福, 未嘗不爲貴鄉攢賀萬萬矣. 然但鄉論謬而不正, 不以東也之蔑學, 徒欲以名, 而使先自東進要東以會務也. 既辭不嫻于社, 繼自花山延東以試教. …… 辭不獲已, 固知不免洛媪之笑. 然非直爲試也, 欲以答舉鄉珍重之禮, 觀濟濟誥誥之儀容而來也.”

인용문 ⑤는 1908년 음력 8월 29일에 主事 曹益煥에게 보낸 답서의 일부이다. 이 편지에는 당시 강릉 지역의 학교 설립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정현동이 강릉의 화산학교로 오게 된 내막이 들어 있다. '瀛校', '東進' 등 당시 강릉에 설립된 신식 사립학교의 명칭이 보인다. '瀛校'는 1905년 강릉 玉街里[현 옥천동]에 설립한 瀛州學校를 말한다.³⁶⁾ '東進'은 1900년 전후에 설립되었다고 하는 東進學校를 말하는데³⁷⁾, 이 학교는 개화파로부터 영향을 받아 청소년들에게 서구의 신지식을 보급하는 한편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인용문에서 신학문을 가르치는 동진학교와 함께 구학문을 교육하는 화산학교가 일어났다고 한 것을 보면, 1909년 이전에 花山學校가 이미 있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용문 ③④⑤에 나오는 화산학교와 강릉향교는 무슨 관계인가. 「花山學校請助文」에서 정현동은 '강릉향교'를 '花山鄉校'로, '강릉향교의 유생'을 '花校之儒'로 칭하기도 하였다.³⁸⁾ 강릉향교를 화산향교라 칭한 것은 강릉향교가 花浮山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08년 당시에 강릉향교에 이미 화산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 단서를 심일수의 「日記」에서 찾을 수 있는데, 1907년 음력 8월 28일(양력 10월 11일)자에 "사립학교를 향교로 옮기고 '花山學校'라 칭했다."³⁹⁾는 기록이

36) 지금까지 영주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정현동의 답서를 통해 영주학교의 설립을 曹益煥이란 인물이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37) 『강원시사』에는 동진학교가 1900년 전후로 설립되었으며, 사립학교 인가는 1909년 6월 4일에 받았다고 되어 있다.(『강릉시사』 하, 강릉문화원, p.480-486.) 그런데 인용문 ⑤에 근거할 때 동진학교는 瀛校가 폐교된 1906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일수의 『둔호유고』 「일기」의 1908년 음력 6월 10일자에는 "선교장에 처음으로 학교를 설립하여 개학하였다.[船橋始設學校開學。【李根宇東進學校】]"라고 되어 있다. 동진학교의 설립연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38) 『화산학교잡록』, 「花山學校請助文」, p.158. "時則我花山鄉校가 蔚然乎關東廿四郡하니 文正公栗谷李先生이 出而倡道焉하고 文莊公愚伏鄭先生이 莅而興學焉하니"; p.158-159. "凡我十五面八千戶는 孰非我江之人이며 孰非花校之儒리오"

39) 沈一洙, 『遯湖遺稿』 卷1(江陵: 檄裸書屋, 1961), 雜著, 「日記」, 張11. "私立學校移于鄉校, 稱花山學校."

보인다. 이 일기에 근거하면, 1907년에 이미 강릉향교 내에 화산학교가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때의 화산학교는 정식 인가를 받은 근대식 학교가 아니라, 유생을 모아 전통 서당식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었다. 강릉향교에서 추도식에 보낸 '同社人'(인용문 ③)과 '學徒'(인용문 ④)는 바로 이러한 유생을 말한다.⁴⁰⁾ 강릉향교에서는 과거와 같은 정규적인 향교 교육은 아니더라도, '화산학교'라는 이름을 걸고 이들 유생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적인 유교 교육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산학교잡록』에는 인용문 ③외에도 '同社'란 말이 여러 군데 보인다. 「九月十六日講會誦西銘演義」는 음력 9월 16일에 송나라 성리학자 張載의 「西銘」을 가지고 同社人을 대상으로 개최한 강회를 기록한 것이다. 이들 통해 강릉향교에서도 同社人의 모임이 빈번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유교 교육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화산학교의 설립을 주도한 '鄭顯東'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정현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草溪鄭氏族譜』 대제학공파 27世에서 '鄭顯東'이란 인물을 확인하였다. 정현동은 初諱가 顯翼이고 字는 景晦, 호는 梅山이며, 거주지는 강원도 양양군 縣南面 浦梅里이다. 현종 경술년(1850) 음력 5월 11일에 태어나 신유년(1921) 음력 4월 11일에 졸하였으며 향년이 72이다. 족보에 "學行이 있었다.[有學行]"고 적시되어 있다.⁴¹⁾ 앞의 인용문 ⑤에서 강릉을 '貴鄉'이라 칭하고 화산학교의 초청으로 강릉에 오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呈石荷書」·「答耆主事益煥書」 등의 편지

40) 인용문 ③에서 '同社人 金元卿'을 보냈다고 하였는데, 김원경이란 유생의 이름이 1930년에 간행된 『江陵靑衿錄：續錄』(崔寅洵 等編, 京城：江陵靑衿錄發行臨時事務所, 1930)에 보인다. 이 책은 한말~일제강점기 강릉지역의 유림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에 金元卿은 字가 元五, 退齋 金志顏의 후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1) 『草溪鄭氏族譜』 권4(초계정씨수보위원회, 대전：農經, 1982), p.598. 정현동의 묘는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浦梅里 如意山에 있다고 적혀 있다. 정현동의 아버지는 采和, 조부는 鴻謨이다. 현재 양양군 현남면 포메리에는 정현동의 伯父 來和의 高孫인 鄭祥澈(1945生)씨가 거주하고 있다. 이 분을 통해 정현동의 존재를 재차 확인하였다. 다만 정현동을 비롯한 선대의 문적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소실되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한다.

에서 자신의 처지를 “客狀依劣”이라 한 것은 모두 정현동의 출신지가 강릉이 아니라 양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앞의 인용문 ⑤를 볼 때, 정현동이 화산학교의 강사로 부임한 것은 1906년 이후로 추정된다.⁴²⁾ 조익환은 1906년에 정현동을 찾아와 ‘敎導’와 ‘裁正’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조익환이 영주학교를 설립하며 학교의 교육과 행정을 담당할 사람으로 정현동을 초청한 것인 듯하다. 그러나 영주학교는 폐교가 되어 정현동이 그 일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이후 정현동은 신식학교인 동진학교의 ‘會務’로 초청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화산학교로부터 ‘試敎’로 초빙을 받았고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끝내 부임을 하였다. 정현동은 양양을 대표하는 유림으로서 학자로 이름이났기 때문에, 강릉의 여러 학교에서 초빙을 하였던 것이다. 족보에도 ‘有學行’이라 명기되어 있거니와 1910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國民大演說會의 寄書者 명단에 ‘襄陽郡 鄭顯東 等 百三十二人’이라 되어 있다.⁴³⁾ 이를 통해 정현동이 당시 양양의 유림을 대표하는 인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현동이 강릉 출신도 아니고 講師의 신분으로 강릉향교에 학교의 설립·인가를 주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1905년 학부에서 향교의 都有司를 폐지하고 校長을 두었는데, 『증보 강릉향교지』에는 1905~1909년 사이에 교장 2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辛錫鼎(1834~?)이 1905년에 취임하여 3년간 임기를 수행하였고, 1908년에는 鄭顯運(1843~1913)이 교장이었다.⁴⁴⁾ 정현운은 정현동과 같은 초계 정씨 대제학공파 27世로, 선대에 횡성에서 영동지방으로 넘어온 일족이었다.⁴⁵⁾ 요컨대 정현동이 1908년

42) 『화산학교잡록』에 수록된 시에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통곡하노니, 삼년 되는 이 해도 또 끝나가는구나[痛哭人間行路難, 三年此歲又將闌]”라며 客愁를 읊은 구절이 보인다. 이 시는 1908년에 지어진 것인데, ‘三年此歲’가 객지살이 3년을 말하는 것이라면, 정현동이 강릉에 온 것은 1906년이 된다.

43) 『統監府文書』 10권, 二四. 統監上京中往復書類, (17) [國民大演說會狀況의 報告移牒 件](1910년 02월 05일).

44) 『증보 강릉향교지』, 강릉향교, 2009, p.755.

45) 『草溪鄭氏族譜』 권4(초계 정씨수보위원회, 대전: 農經, 1982), p.509. 정현운은 初

에 화산학교의 설립·인가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교장 정현운의 후원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1911년 화산학교가 폐교된 이후 정현동의 중요한 행적 하나를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찾아내었다. 高宗이 薨去한 뒤 1919년 강원도 각지에서 고종에 대한 哀悼와 望哭式이 거행되었는데,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高等警察課에서 작성한 강원도의 동향 보고서에 정현동과 함께 최재린의 이름이 보인다.⁴⁶⁾ 보고서의 第3款 고종의 흥거에 대하여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冷詳을 시도한 인사 명단에, 兩班儒生 중 老年者로 양양군 거주 양반 정현동과 강릉군 거주 양반 최재린이 나온다. 최재린은 앞의 인용문 ④에서 정현동이 추도문을 부탁하였던 인물이다. 보고서의 기록에 따르면 정현동은 당시 “李太王은 이조 오백년의 국토를 모두 일본에게 탈취 당했고 또 이천만 신민이 모두 일본의 노예가 되었다. 만고불변의 仇敵인 그대들에게 우리는 服喪할 것을 요구한다.” 운운하였다고 한다.⁴⁷⁾

한편 화산학교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權鍾珪, 崔瑢河, 金演性 등의 행적은 자세하지 않다. 다만 강릉향교의 直員 명단을 보면, 金演性은 1931년 직원에 임명되어 임기를 1년간 수행하였다. 김연성의 본관은 강릉, 생년은 미상이며, 거주지는 강릉읍 금학동으로 되어 있다.⁴⁸⁾

諱가 顯益, 字는 友三이다. 『증보 강릉향교지』에는 생일이 음력 8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족보에는 26일로 차이가 있다. 『증보 강릉향교지』에 정현운의 거주지가 강릉 경방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양양의 香洞(곧 포매리)과 함께 횡성에서 분파되어 영동지방으로 온 초계 정씨의 주요 세거지였다.

46)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7(문서번호: 高 第6334號), 「李太王 薨去에 관한 全道民情一般(제9호): 江原道(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高等警察課, 1919년 03월 10일)

47)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 II(광복회 강원도지부, 1992)에 강릉 출신 독립운동가로 ‘화산학교 정현동’이 들어 있는 것은 이러한 활동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족보와 총독부의 보고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현동은 강릉이 아닌 양양 출신이다.

48) 정현동을 비롯한 발기인 3인의 이름이 1940년에 간행된 『강원도지』의 ‘인물’조

이상을 통해, 화산학교가 1907년에 이미 서당 교육을 하는 비인가 사립 학교로 강릉향교 내에 존재하였으며, 1908년에 학부의 <사립학교령>이 공포되면서 정식 설립 절차에 들어가 1909년 봄에 개교했음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학교의 설립을 주도하였던 정현동이란 인물은 양양을 대표하는 유림인데 학자로 이름이 나서 화산학교의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학교장이자 일족인 정현운의 후원 아래 화산학교의 설립을 주도하였음을 밝혀내었다.

2. 설립 취지와 지역사회에서의 갈등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화산학교는 신식 사립학교와는 설립 취지와 운영에서 성격을 달리한다.⁴⁹⁾ 화산학교는 서당식 전통 유교 교육에 약간의 신식을 가미한 방식이었다. 趣旨書, 學規, 讀書次第 등에서 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화산학교 설립의 배경과 교육의 목표를 밝힌 취지서를 살펴보자.

- ⑥ 최근 몇 년 동안 뜻 있는 인사들 중에는 서양의 문명을 보고 무성하게 학교를 세우 열심히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用人 事務만 가르칠 뿐 體인 倫理는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뜻에서 하는 일임을 진정 압니다. 그러나 體를 밝히고 用을 알맞게 하며 體로 말미암아 用에 도달하는 것이 道의 근본입니다.⁵⁰⁾

에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강릉 지역 유림 명단이 들어 있는 『江陵靑衿錄：續錄』(崔昌洵 等編, 京城：江陵靑衿錄發行臨時事務所, 1930)에 金演性이 보이는데, 字가 正叔이고 芝峯 金夢虎의 9세손이라 되어 있다.

49) 금창현은 화산학교의 성격을 '보수 지향적인 근대식 학교'로 설명하고, '향교에 참여하는 지방 유력자들이 지방 문화를 선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금창현, 앞의 논문, 2001, p.190. 본고 역시 이에 동의하는데, 다만 설립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사회와의 갈등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50) 『화산학교잡록』, 「趣旨書」, p.133. "自數年來로 有志人士이 有觀於泰西之文明호야 鬱鬱學校호며 懇懇教育而但專治於事務之用호고 似欠於倫理之體호니 固知出於急時之爲나 然이나 明體適用호며 由體達用은 道之本也라"

- ⑦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반드시 舊學文과 新學文을 가지고 걸핏하면 층을 만들어서 마침내 서로 소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려가 깊지 못한 것이요, 俗儒가 하는 짓일 뿐입니다. 신학문 중에 정치·경제·농상·법률로부터 화학·수학 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구학문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질박함을 버리고 文飾을 꾸미며 투박함을 바꿔서 날카로움을 만들어 新奇하고 工巧한 것만을 힘쓰고자 하니 이상할 노릇입니다. 구학문 중에 혹 時宜에 맞지 않는다면 참으로 옛것에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문 중에 오히려 시의에 맞아 적용할 게 있다면 또한 새로운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원컨대 여러 군자들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大用의 학문을 온전히 표방하고 구학문과 신학문을 서로 절충하여 通暢하게 한다면 두 학문 사이 생겼던 층과 갈등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⁵¹⁾

『화산학교잡록』에는 취지서가 3편 수록되어 있다. 맨 앞, 다섯 번째, 맨 끝에 각각 1편씩 있는데, 맨 끝에 있는 것은 서두 정도만 작성된 글로 완결된 문장이 아니다. 인용문 ⑥은 맨 앞의 한문현토로 작성된 「趣旨書」의 일부이고, ⑦은 현토 없이 한문으로만 된 「花山學校趣旨書」의 일부이다. 「趣旨書」는 9월 중순 同社 제군들과 향교에서 모임을 가지고 학교 설립을 발기할 때 작성된 것이다. 西勢東漸의 시대에 서구의 실용 학문을 가르치는 신식학교가 생겨나는 세태 속에서 전통 유교 윤리를 가르치는 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花山學校趣旨書」는 현토 없이 한문으로만 작성하였으며 앞의 「취지서」에 비해 보다 유교 이념 지향적이다. 우리나라를 ‘小華’라 지칭하였으며, 서두에서는 맹자의 말을, 말미에서는 程顥와 蔡沈의 말을 인용하여 유학

51) 『화산학교잡록』, 「花山學校趣旨書」, pp.139-140. “雖然, 今之人必以舊學文·新學文, 動作層節, 遂成扞格. 此不思之甚, 俗儒之歸也. 如新學文中, 政治經濟農商法律, 以至化學算學諸件學, 無非自舊學文出來者. 而但舍樸爲彫, 回鈍作銛, 務欲其新奇工巧者, 有所異也. 於舊學而或有所不合時宜者, 則固不可泥於舊矣. 於新學而猶有所隨時取用者, 則且不慢其新矣. 惟願僉君子深究乎. 吾門全號大用之學, 折衷而通暢之, 則向之層節扞格無自生矣.”

이 이 세상이 유일한 도이자 이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⑦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학문과 신학문의 현실적 절충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學規」와 「讀書次第」에서 신식을 가미한 내용을 확인해 보자. 「학규」에서 주목되는 것은 입학 자격 부분이다. 「학규」의 첫 번째 규정에 사족의 한미한 가문 자제는 물론이고 間塾의 15세 이상 되는 자 중에 학업에 뜻있는 자로 추천을 받으면 누구든 입학 가능하다는 입교 자격을 명기하였다.⁵²⁾ 조선시대 국학과 향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良民 이상의 신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반 사족이었다.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는 철폐되었지만, 향교는 여전히 지역의 유림이 중심이었다. 화산향교에서는 여느 신식학교와 마찬가지로 입학의 문을 넓힌 것이다.

「독서차제」에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독서 목록과 순서를 적어두었는데, 전통적인 서당식 교재 위주이다. 『효경』과 『소학』을 비롯한 사서오경이 주요 교재이다. 다만 가장 먼저 율곡 이이의 「學校模範」과 퇴계 이황의 「心法銘」을 읽게 한 점이 특이하다.⁵³⁾ 「학교모범」은 1582년(선조 4)에 대제학 이이가 선조에게 올린 學劄이다.(『율곡전서』 권15에 수록) 곧 율곡의 「학교모범」을 통해 전통 유교 교육의 체제나 규율을 먼저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다. 퇴계의 「心法銘」은 「독서차제」의 뒤에 附記해 두기도 하였는데, 堯舜이래 유교의 道統을 서술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화산학교 유교의 도를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교육 목표를 각인시키고자 한 것이다.

한편 「독서차제」의 맨 끝에는 주요 교재를 공부하는 간간이 고금의 역사서와 함께 『大東學會月報』를 읽어서 식견을 정밀하게 하고 意趣를 넓어야 한다고 하였다.⁵⁴⁾ 『대동학회월보』는 大東學會에서 발간하는 기관지인

52) 『화산학교잡록』, 「學規」, p.136. “取士之法：勿論士族寒門，自間塾取其十五歲以上有志學者，升薦。”

53) 『화산학교잡록』, 「讀書次第」, p.140. “凡我讀書之人，入校之初，先讀栗谷先生學校模範，知爲學之由乎道；讀退溪先生心法銘，知吾道之本乎心。”

54) 『화산학교잡록』, 「讀書次第」, p.141. “間讀古今歷史與近日『大東學會月報』，以精識見，以廣意趣。”

데, 대동학회는 1907년 서울에서 설립된 학술단체이다. 각도에 별도로 총무를 두었는데 강원도 총무를 맡은 이가 鄭鳳時(1855~1937)⁵⁵⁾였다. 1917년 강릉향교 명륜당에서 강연회를 열었을 때, 정봉시는 江原道 講師의 신분으로 경학원 부제학 李容植과 함께 강연자로 참여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정현동은 같은 집안인 정봉시를 통해 대동학회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대동학회는 儒道로 體를 삼고 신학문으로 用을 삼는 것을 표방하였는데, 정현동이 화산학교 설립 때 내세운 신·구학문의 절충은 이 단체의 영향으로 보인다.

『대동학회월보』는 1908년 2월 25일자로 창간되었으며 1909년 9월까지 통권 20호가 발행되었다. 문장은 주로 한문이고 한문현토가 약간 있는 정도이다. 주요 필진은 金允植, 呂圭亨, 申箕善, 俞吉濬, 金澤榮, 鄭萬朝 등 당대의 석학이나 문장가들이었다.⁵⁶⁾ 정현동은 『대동학회월보』를 통해 학생들이 구학문을 중심에 두고 신학문을 수용하며, 당대 석학들의 한문 문장을 공부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독서차제」를 통해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화산학교는 약간의 신식을 가미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전통식 유교 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현동은 왜 구학문과 신학문과의 절충을 강조한 것일까.

- ⑧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나라의 동쪽 구석에 위치하여 時機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설립된 학교와 書塾은 몇 개 안 될 정도로 영성할 뿐만 아니라, 대략 신설한 학교라도 옛날부터 있었던 서숙과는 각각 스스로 다르다고 합니다. 과거

55) 鄭鳳時 : 1855~1937. 일제강점기의 관료. 본관은 草溪, 호는 松里이다. 본적은 강원도 횡성군 邑下洞. 1891년(고종 28) 생원이 되었으며 1896년 춘천부 참서관으로 근무한 뒤, 内部의 회계국장, 지방국장·치도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1908년 『國朝寶鑑』 증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09년 규장각 부제학에 올랐으며, 1912년부터 1929년까지 17년간 경학원 강원도 講師로 활동하였다. 1929년 경학원 부제학에 올랐으며, 1936년 경학원 대제학 겸 明倫學院 총재로 재직하였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정봉시'조)

56)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1, 현암사, 2004.

에 얽매어서 지금의 세대를 비난하거나 새로운 것에 몰들어 옛 것을 비방합니다. 학교에서는 서숙을 업신여기고 서숙은 학교를 원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치 물과 불처럼 함께 지내지 못하고, 향긋한 薰과 악취가 나는 穢처럼 같은 그릇에 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멈추지 않는다면 비단 학문적으로도 범위를 넓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족간의 화목함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그 재앙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 이제부터는 구한문과 신지식을 서로 주고받으며 新學校와 舊書塾이 서로 아끼고 보호하여 사람들마다 배움을 진흥시키고 마을마다 학교를 설립한다면, 비단 우리 강원도 내에서 학교와 교육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도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 나라의 일일뿐 만이 아니며, 世道를 만회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⁵⁷⁾

인용문 ⑧은 정현동이 1908년 음력 10월에 강원도 내 각 향교에 보낸 勸諭文의 일부이다. 강릉향교에서 새롭게 학교를 신설하게 된 배경을 밝히는 가운데, 신학교와 구학교의 대립, 신학문과 구학문 사이의 갈등을 언급하였다. 학부의 <사립학교령>을 통해 화산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구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특히 신학교의 반발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화산학교 설립에 우려를 표명하며 主事 曹益煥(1862~1914)이 정현동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화산학교잡록』에는 정현동이 조익환에게 답한 편지 2편이 수록되어 있다. 하나는 1908년 음력 8월에 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력 9월에 답한 것이다. 적어도 조익환은 정현동에게 먼저 두

57) 『화산학교잡록』, 「各文會勸諭文」, pp.160-163. “然而本道가 僻在東隅호야 尙不知時機之如何焉호며 教育之如何焉호야 校塾之設立에 零星無幾個處뿐더러 畧有新設學校라도 與其舊有書塾으로 各自區別하야 至有泥古而非今호며 染新而詛古하고 以校而侮塾하며 以塾而怨校하야 便同水火之不相宿하며 薰蕕之不同器하니 若此不已면 非但學問上範圍가 不廣이라 同族間和氣가 稍淺하리니 究竟爲害가 寧爲紀極이리오 …… 從茲以後론 舊學新識을 互相受授하며 新校舊塾이 互相愛護하야 人人興學하고 村村設校하면 非但爲一省之擴張이라 亦爲他道之模範矣리니 豈非一國之事耳而挽回世道之基礎歟아”

차례나 편지를 보내 화산학교 설립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다.

조익환에 대해서는 행적이 자세하지 않은데, '主事'라는 관직을 역임한 것은 분명하다. 『승정원일기』 1888년(고종25) 2월 18일 기사의 增廣監試初試入格 명단에 '曹益煥'이란 이름이 있으며, 1900년(고종37) 12월 18일 기사에는 조익환을 慶尙北道 觀察府 主事로 임명한다는 기록이 보인다.⁵⁸⁾ 첫 번째 답서의 서두에서 정현동은 9년 전인 1889년경 서울에서 조익환을 만났고, 병오년(1906) 음력 10월에는 조익환이 정현동을 찾아왔다고 언급하였다.⁵⁹⁾ 1889년이라면 조익환이 1888년 2월 초시에 합격한 후 1900년 12월 경북 관찰부로 부임하기 전 서울에 기거할 때인 듯하다. 그러나 본관, 생년, 출신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기록만으로는 이 사람이 정현동이 말하는 이와 동일 인물인지 확신할 수 없다.

『昌寧曹氏江陵派譜』를 통해 『승정원일기』와 『화산학교잡록』에 나오는 조익환이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였다. 조익환의 생년은 1862년 음력 3월 16일이며 몰년은 1914년 음력 3월 27일이다. 字가 敬三, 호는 學凡齋이다.⁶⁰⁾ 이 파보에는 조익환이 과거에 합격한 후 경상북도 관찰부 주부를 역임하고, 영주동진·화산학교 등이 창설될 때 깊이 관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⁶¹⁾ 인용문 ⑤에서 조익환이 영주학교의 창립을 주도하고 동진학

58) 그 외 1901년(고종 38) 12월 22일에 조익환을 李舜應·李應和와 함께 商工學校 教官에 임명하였는데, 다음날인 23일에 商工學校 教官 曹益煥을 비롯한 이순응이 응화 등에 依願 면직을 허락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1902년(고종 39) 4월 17일 조익환을 함경북도관찰부 주사에 임용하였는데, 이틀 후인 19일 함경북도관찰부 주사 조익환에 依願 면직을 허락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59) 『화산학교잡록』, 「答曹主事益煥書」(八月二十九日), p.144. “九年前洛邸顏範而但未能即晉而答. 丙午小春, 左顧之虛, 至承先施, 悚惶忸怩, 無容爲喻. 且責之以教導, 任之以裁正, 蹙然惕然, 無以措躬爲也.”

60) 1906년 강릉에서 創契된 慕先契의 創契員 명단인 『慕先契座目』에 曹益煥이 보인다. 『慕先契座目』(필사본), 방동인·이규대 공편, 『영동지방향토사연구자료총서』 1(鄉約契),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94, p.303. 여기서는 호가 凡齋로 되어 있으며 거주지는 錦鶴洞으로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慕先契는 강릉 출신 진사 급제자를 추하하였던 江陵司馬所의 堂宇를 중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1906년에 결성되었다.

61) 『昌寧曹氏江陵派譜』 권3, 창녕조씨강릉파보편찬위원회 편, 대전: 回想社, 1989,

교의 중임을 맡고 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정현동이 조익환을 두고 “구학문의 體를 터득하신데다 신학문의 用에 대해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조익환은 강릉의 유림으로서 개화사상을 받아들인 뒤 고향인 강릉에서 신학문 교육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조익환이 화산학교 설립을 반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정현동은 두 번째 답서에서 조익환 편지의 내용을 직접 언급하며 조익환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정현동의 답서를 통해 조익환의 주장과 정현동의 반박을 재구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⑨ [조익환 주장] 三王五帝는 서로 禮樂이 같지 않았는데 지금 시대를 살면서 옛날의 道로 돌아가려 한다면 재앙이 반드시 그 몸에게 미칠 것입니다. 태평한 시대에는 文을 숭상하고 혼란한 시대에는 武를 숭상하니, 干戚의 舞樂으로는 平城의 포위를 벗어날 수 없는 법입니다. 비록 尾生과 孝己과 같은 우직한 행실이 있더라도 성패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니, 참으로 隨時應變하고 臨時制宜함을 알아야 합니다.

[정현동 반박] 삼왕오제의 예악이 비록 서로 같지 않았으나, 변하지 않는 春秋大法에 있어서는 실로 일찍이 옛날을 버리고 지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살면서 옛날의 도로 돌아가려 한다면 재앙이 반드시 그 몸에 미칠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어리석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고 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테면 井田制로 돌아가려고 한 王莽이나 『周禮』를 본떠 新法을 만든 王安石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治亂에는 定數가 없으며 文武는 한쪽만 써서는 안 됩니다. 堯舜과 같은 태평성대에도 “(綏服 지역에서 삼백리는) 文教로 다스리고 (이백리는) 武威를 떨쳤다.”(『

pp.79-80. “公剛方謹潔，友愛宗族，言議正重。早年場屋，凡十度一天，大擅詩名。早見時宜，瀛州東進·花山及公立學校創設之際，隨輒周旋，培成人材，地方公益，無不先導。內外人士，莫不敬服。” 조익환의 묘는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파보에는 진사 朴豐緒가 지은 墓誌銘이 있으며 조익환의 遺稿가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유교에는 조익환이 정현동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창녕조씨강릉중회를 통해 유교를 수소문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그 행방을 찾을 수 없다.

書經·禹貢』라고 하였으며, 한 고조가 발흥할 때에도 “文德과 武勇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국가를 장구히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와 노나라가 夾谷에서 회합할 때 공자께서 “文과 관계된 일을 할 때에도 반드시 武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春秋左氏傳』定公10年)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일찍이 치세에는 文만 숭상하고 난세에는 武만 숭상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 하물며 당당한 우리 大韓의 大教育에서 어찌 文이 없이 단지 武만 힘써야 되겠습니까. 또한 지금 필요한 교육은 한때에 적용되는 것만으로는 적절치 않으니, 장차 훗날 크게 쓰임을 위해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인재를 기를 때 마땅히 공자·맹자·정자·주자의 文, 강태공·제갈공명의 武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62)

조익환은 시대가 변했는데 反古하는 것은 그 폐해가 자명하며, 난세에는 文이 아닌 武를 숭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익환이 주요 근거로 든 것은 『대학장구』 28장에 나오는 공자의 말로, “어리석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고, 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하기를 좋아하고,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이런 사람은 재앙이 그 몸에 닥칠 것이다.[愚而好自用, 賤而好自專; 生乎今之世, 反古之道, 如此者裁及其身者也.]”라는 구절이다. 그리하여 조익환은 정현동을 우직하기만 할 뿐 융통성이 없는 尾生과 孝己에 빗대었다.

이에 대해 정현동은 자신의 反古는 시대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왕망이나 왕안석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구학문과 신학문을 절

62) 『화산학교잡록』, 『答曹主事益煥書』, pp.153-155. “[조익환 주장] 三王不同禮, 五帝不同樂, 居今之世, 反古之道, 災必逮夫身. 平世尙文, 亂世尙武, 干戚之舞, 不足以解平城之圍. 雖有尾生孝己之行, 無益成敗之數, 固知爲隨時應變, 臨時制宜. [정현동 반박] 然則三五禮樂, 縱然不同, 然在春秋不易之大法, 實未嘗舍古而用今也. 至曰‘居今反古, 災必逮身者, 不過指‘愚而好自用, 賤而好自專’者也, 如莽之井田·安石之周禮等是也. 且治亂無定數, 文武不偏用. 堯舜之治而曰‘揆文教, 奮武威’, 漢高之興而曰‘文武併用, 長久之術’, 齊魯夾谷之會, 夫子曰‘有文事者, 必有武備’. 何嘗治尙文, 亂尙武乎? …… 況我堂堂大韓大教育, 豈可無文而徒武乎哉? 且今日之教育, 不適爲一時適用而已, 將欲爲異時大用而設, 則其才之作成也, 當學得孔孟程朱之文·太公孔明之武……”

중해야 하듯이, 文과 武 역시 겸비해야 해야지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비록 지금 같이 외세가 침략하는 시대에 強兵이 절실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교육은 한때의 쓰임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⑩ [조익환 주장] 풀과 가죽을 입는 것에서 고운 비단을 입는 데에 이르기까지, 나무 위나 토굴에 사는 것에서 화려한 宮臺에 사는데 이르기까지, 짐승의 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서 진수성찬을 먹는 데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지혜에 따라 개발한다고 날마다 성취될 것이 있겠소이까. [정현동 반박] 참으로 옛날과 지금은 당연히 다르며, 文과 野가 다른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실에 힘쓰지 않고 단지 外華만을 숭상한다면, 저 화려한 宮臺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土階(堯舜을 가리킴)의 검소함을 할지언정 결단코 夏癸(하나라 폭군 桀)의 사치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어찌 外華를 추구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학문적으로 말해 보면, 聞譽는 자기 몸에서 펼치고 다른 사람의 文繡를 바라지 않으며, 義理는 자기 마음에서 즐기고 다른 사람의 膏粱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 다만 전세계 선진국으로 말해 보면, 西歐의 런던[倫敦]보다 화려하고 성대한 곳이 없습니다. 頓과 頓敦의 화려함은 영국과 미국의 부강함에서 나온 것이며, 영국과 미국의 부강함은 德과 智를 교육한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지금 그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탐구하지 않고 한낱 외형을 모방하는 것을 일삼으니, 어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⁶³⁾

63) 『화산학교잡록』, 「答曹主事益煥書」, pp.155-156. "[조익환 주장] 白衣草衣皮, 以至於綾羅錦繡; 自木處土居, 以至於瓊宮瑤臺; 自茹毛飲血, 以至於瓊珍饌. 隨民之智開發, 日有所成就? [정현동 반박] 誠有古今之異宜, 文野之殊尚耳. 然若不務內實, 而只尚外華, 則彼瓊宮瑤臺美則美矣. 寧爲土階之檢, 而決不爲夏癸之奢. …… 豈可外慕爲哉? 且以學問上言之, 則聞譽施於身, 不願人之文繡也; 義理悅於心, 不願人之膏粱也. …… 第以全球上先進國言之, 繁華壯麗, 莫如歐之倫敦米之華盛, 頓而頓敦之華麗, 由於英美之富強; 英美之富強, 由於德智之教育. 今不究內容之所以充實, 徒事乎外形之模倣, 如之何其可也?" 원문의 '倫敦米'에서 '米'는 연자나 '市'의 오자인 듯함. '頓'과 '頓敦'은 영국과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인 듯하나 미상.

조익환은 백성들에게 윤리를 교육한다고 해서 그들의 의식주를 윤택하게 해주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서구처럼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 유교 교육이 아닌 서구식 근대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현동은 서구의 부강함이 德智를 교육한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구를 배운다면 그 속을 탐구해야지 단순히 외형만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학문을 위주로 하는 화산학교는 신학문을 가르치는 신식학교와의 갈등 속에서 설립되었다. 화산학교의 설립을 주도한 정현동도, 설립을 반대한 조익환도 모두 지역의 유림이었다. 조익환은 富國強兵을 통한 국난 극복을 위해 신식교육을 주장한 것이며, 정현동은 인간 교육의 차원에서 유학을 본체로 하고 신식교육과의 절충을 시도했던 것이다.

VI. 맺음말

본고에서는 한말~일제강점기 강원도 강릉향교의 변화 양상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갑오개혁 이후 향교 제도의 개편에 따라 강릉향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리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학부의 일련의 조치로 강릉향교 유생을 입적하거나 입적한 유생을 교육하는 전통적인 향교 교육은 정지되었다. 그러나 제향 기능을 유지하며 지역 유림의 교류와 결속을 다지는 구심점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였다. 더욱이 講書나 考試 등의 행사를 개최하며 교육과 학술 기관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시기 강릉향교의 변화 중에 본고가 특히 주목한 것은 1908년에 이루어졌던 화산학교의 설립 과정이었다. 『화산학교잡록』, 『둔호유고』 등의 관련 자료를 통해, 1907년에 이미 강릉향교에 서당 교육을 하는 사립 화

산학교가 존재하였으며, 1908년에 학부의 <사립학교령>이 공포되면서 정식 설립 절차에 들어가 1909년 봄에 개교했음을 밝혀내었다. 아울러 학교의 설립을 주도하였던 정현동이란 인물의 인적 사항과 행적을 최대한 추적하여 구명하였다. 정현동은 양양을 대표하는 유림인데 학자로 이름이 나서 화산학교의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학교장이자 일족인 정현운의 후원 아래 화산학교의 설립을 주도할 수 있었다.

특히 설립 과정에서 강릉 지역의 유림이자 신식학교의 임원인 조익환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지역 사회에서의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화산학교는 전통 서당식 교육에 신식을 가미한 학교로서, 서구식 근대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기치로 내걸었던 신식 사립학교와는 성격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화산학교는 신학문과 구학문의 갈등, 신학교와 구학교의 대립 등을 겪으면서 설립된 것이며, 이 때문에 구학문의 윤희와 구학교의 체제를 위주로 하면서도 신학문의 실용성과 신학교의 면모를 절충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부록 : 『花山學校雜錄』 수록 편명 및 내용]

(연월일은 음력임)

번호	제목(페이지)	내용
1	趣旨書 (pp.131~134)	-서구의 실용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가 생겨나는 西勢東漸의 시대에 전통 윤리를 교육하는 학교의 필요성 역설. -學部로부터 국학(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 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뻐함. -한문에 현토를 붙임.
2	勸告文 (pp.134~135)	-1908년 8월에 '發起人 權鍾珏 崔瑢河·金演性'이 씀.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의 개교하니 동참할 것을 역설함. -끝에 교육과정과 입학자격을 소개함. -교육과정 : 啓蒙篇, 童蒙須知, 童蒙先習로 시작해서 小學, 孝經 등 (전통 서당식 교육) -입학자격 : 15세 이상으로 학업에 뜻을 둔 자. -한문에 현토를 붙임.
3	白鹿洞院揭示 (pp.135~136)	-朱熹가 지은 백록동서원의 학규를 옮겨 놓음. -五教之目, 爲學之序, 修身之要, 處事之要, 接物之要 등
4	學規 (pp.136~138)	-학규를 조목으로 기술함. 입학 자격, 학교 조직, 학업 태도, 학생 생활 규칙 등을 정함. -영인 과정에서 '1쪽'이 누락됨.
5	花山學校趣旨書 (pp.138~140)	-앞의 취지서와는 내용이 다르며, 현토 없이 온전히 한문으로 작성. -구학문과 신학문이 대립하는 시대 상황 속에 둘의 절충을 역설함. 이를 통해 구학문을 가르치는 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정당성 확보하려고 함.
6	讀書次第 (pp.140~141)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도서 목록과 순서를 제시함. -주요 교재 : 『효경』, 『소학』을 비롯한 사서오경. -다만 가장 먼저 율곡 이이의 『學校模範』과 퇴계 이황의 『心法銘』을 읽어야 한다고 함. -또 틈틈이 고금의 역사서와 『大東學會月報』를 읽어서 식견을 정밀하게 하고 意趣를 넓어야 한다고 함. -뒤에는 『退溪先生心法銘』을 부기해 두었음.
7	退溪先生心法銘 (p.142)	-『退溪集』 권4에 수록되어 있는 「題金士純屏銘」으로 “堯欽舜恭”에서 “淵源正脈”에 이르는 80자임. 이 글은 퇴계가 손수 써서 鶴峯金誠一에게 준 것이라고 함.(『鶴峯集』 부록, 『年譜』)

번호	제목(페이지)	내용
8	學規 (p.142)	-앞의 학규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한 것으로 3개 조항을 보완함. -잠시 집에 가서 머물 때의 생활태도, 학규를 어긴 학생이나 언행이 불손한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보충.
9	警察署追悼文 (pp.142~143)	-1906년 10월에 강릉경찰서 보좌관으로 부임하였던 일본인 嚴元復矢이 1907년 9월에 인제의 기린에서 죽음. -1908년 9월 8일(양 10월 2일) 기일을 맞아 경찰서장 涉重溟의 주도로 추모식이 성대하게 펼쳐졌는데, 이때 화산향교(곧 강릉학교)의 강사 鄭顯東이 부탁이 받아 추도문을 작성함. -관련 내용이 뒤의 「呈石荷書」에도 보임.
10	答曹主事益煥書 (pp.143~147)	-1908년 8월 29일(양 9월 24일)에 主事인 曹益煥에게 답한 편지로, 구학문 위주의 학교를 설립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임.(정현동은 社友를 통해 8월 24일(양 9월 19일) 조익환의 편지를 받았음.) -조익환은 구학문을 부활하는 학교 설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정현동은 구학문과 신학문의 體用折衷을 주장하며 화산학교 설립 취지를 설명함.
11	呈石荷書 (pp.147~148)	-1908년 9월 7일(양 10월 1일)에 石荷에게 회답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 편지. 석하는 강릉의 근대 유명서화가인 曹秉駿(?~?)인 듯 함. 편지의 말미에 '兄弟爲校保重'이라 한 것을 보면, 석하 역시 당시 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경찰서에서 9월 6일 本校의 三任에게 講牒을 보내 경시관 故 嚴元復矢의 추도문을 요청함. 본교에서는 主事 崔在璘에게 추도문을 요청함.
12	聖廟告論文 (p.148)	-1908년 9월 1일(양 9월 25일)에 朔望禮 때의 고유문.
13	寄同社諸君 (pp.148~150)	-1908년 9월 10일(양 10월 4일)에 東社의 諸君들에게 보낸 것. 서두에 '相別已作十八日'이라 한 것으로 보아, 근래 모임을 가졌었음. -동사의 제군들에게 西勢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유학을 지켜내자고 역설함.
14	呈霞隱書 (pp.150~151)	-1908년 9월 10일(양 10월 4일)에 霞隱에게 올린 편지로, 어제 重陽節을 맞아 술과 음식을 보내주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감사 인사를 올림. -「霞隱」는 「張格龜」의 호로 보임. 강릉 창녕 조씨 고문서 자료를 보면, 「謹和滄崗自敘韻」 수록 한시 작자 128명 중 「霞隱 張格龜」가 보임. 이 시집은 滄崗 金翁의 81세 壽筵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지은 시로 창강의 自敘韻에 화답한 시.(『수집사료해제집』 7, 국사편찬위원회, 2013, '강릉 창녕조씨 고문서 목록 및 해제')

번호	제목(페이지)	내용
15	九月十六日講會誦 西銘演義 (pp.151~152)	-1908년 9월 16일(양 10월 10일) 향교에서 열었던 張載의 「西銘」 강회의 기록. -서두에 학교와 교육의 필요성 역설함.
16	上鶴洞崔師丈書 (pp.152~153)	-鶴洞의 崔師丈에게 올린 안부 편지. 최사장은 미상인데, 「師丈」이라 한 것을 보면 정현동이 스승으로 모신 분인 듯함.
17	答曹主事益煥書 (pp.153~157)	-조익환이 9월 1일(양 9월 25일) 보낸 두 번째 편지에 대한 답장. -앞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구학문을 가르치는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조익환의 주장을 반박함.
18	花山學校請助文 (pp.157~160)	-강릉군 내 15개의 면 8천호에게 학교 설립의 취지에 동참하고 물적 지원을 호소한 글. -교육의 중요성, 문향으로서의 강릉의 위상, 서세동점의 시대에 도학 교육하여 인재를 기르는 교육의 필요성 등을 역설. -1908년 8월 학교 설립을 발기했을 때 순식간에 1천환이 모금된 사실을 들어 강릉 군내 뜻있는 사람들의 동참을 호소함. -한문에 현토를 붙임.
19	各支會勸諭文 (pp.160~163)	-강원도 각 군의 향교에 보내 도움을 청한 글로, 새롭게 학교를 신설하게 된 배경과 설립 과정을 밝힘. 아울러 신학교와 구학교의 대립, 신학문과 구학문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학교 설립의 취지를 강조하며 동참을 촉구함. -한문에 현토를 붙임.
20	【無題】 (pp.163~164)	-별다른 제목이 없이 한시 2편이 있는데, 7언 율시와 7언 절구로 운자는 다름. -두 편 모두 行路難과 客愁를 읊은 것임.
21	次濟東晬辰韻 并小序 (p.164)	-1908년 10월에 있었던 친구 崔濟東의 회갑 잔치에서 회갑을 축하한 시와 그에 붙인 小序.
22	告由文 (p.165)	-1908년 10월 1일(양 10월 25일)에 다른 사람 부탁을 받아 대신 쓴 告由文.
23	花山學校趣旨 (pp.165~166)	-서두 정도만 작성된 글로 완결된 문장이 아님.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논설하며 종교(곧 도학)의 중요성을 역설. -요순우탕으로부터 조선의 퇴계, 율곡에 이르는 도통을 언급하며 유학의 '學', '文', '性', '德', '行' 등을 언급함.

〈參考 文獻〉

1. 자료

- 鄭顯東, 『花山學校雜錄』(필사본 1책), 방동안이규대 공편, 『영동지방향토사연구자료
총서』 3(書院學校2),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94.
- 방동안이규대 공편, 『영동지방향토사연구자료총서』 1(鄉約契),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94.
- 沈一洙, 『遼湖遺稿』, 江陵: 楸裸書屋, 1961.(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江陵鄉校實記』, 강릉고적보존회, 1933.(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증보 강릉향교지』, 강릉향교, 2009.
- 『향교석전: 강릉향교·인천향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 『강릉향교칠백년사지』, 강릉향교, 2013.
-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47(강원도), 한국고전종합DB.
- 『국역 강원도지』 上·下. 原文, 강원도 편, 최상익 외 역주, 강원도, 2005.
- 『강원도사』, 강원도, 1995.
- 『강릉시사』, 강릉문화원, 1996.
- 『增修臨瀛誌(全)』, 강릉고적보존회, 1933.(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臨瀛(江陵溟洲)誌』, 임영지증보발간위원회, 강릉사명주군, 1975.
- 『江陵靑衿錄: 續錄』, 崔寅洵 等編, 京城: 江陵靑衿錄發行臨時事務所, 1930.(국립중앙
도서관 소장)
- 『수집자료해제집』 7(강릉 창녕조씨 소장 고문서), 국사편찬위원회, 2013.
- 『한국근대사기초자료』 2, 국사편찬위원회, 2010.
-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 II, 광복회 강원도지부, 1992.
- 『草溪鄭氏族譜』, 초계정씨수보위원회, 대전: 農經, 1982.
- 『昌寧曹氏江陵派譜』, 창녕조씨강릉파보편찬위원회 대전: 回想社, 1989.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강릉)〉 : <http://gangneung.grandculture.net/>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http://db.itkc.or.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 : <http://db.history.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 <http://people.aks.ac.kr/>

2. 논저

- 강대민, 『한국의 향교 연구』, 경성대 출판부, 1992.
- 권오영, 『근대이행기의 유림』, 돌베개, 2012.
- 금창현, 「강릉 화산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영동문화』 8,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원, 2001.
- 박민영, 「閔龍鎬의 江陵義兵 抗戰에 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1.
- 손중환, 「강릉 31 독립운동의 조명(Ⅱ)」, 『臨瀛文化』 17집, 강릉문화원, 1993.
- 안세현, 「강원 지역의 유교 문화와 지역성-향교·향약의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東아시아古代學』 31, 東아시아古代學會, 2014.
- 안세현, 「조선후기 향교의 지역성-정조 연간 강릉향교의 석전제 祭需 사건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36, 한국한문고전학회, 2018.
- 이규대, 「16세기 후반 율곡과 강릉 사림의 교유와 향촌질서 모색」, 『율곡학연구』 13, 율곡연구원, 2006.
- 이규대, 「17세기 江陵地方의 士族과 향약 조직」, 『영동문화』 3,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원, 1988.
- 이규대, 「17세기 초반 江陵지방 栗谷鄉約의 성격」, 『율곡학연구』 27, 율곡연구원, 2013.
- 이청희, 「復齋 閔龍鎬의 義兵活動」, 『영동문화』 6,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원, 1985.
- 임호민, 「17~18세기 강릉사족의 결속과 분화」,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 임호민, 「17~19C 강릉지역 재지사족의 조화와 갈등구조」, 『지역사 자료의 교육자료 활용방안 탐색』, 서경문화사, 2009.
- 임호민, 「18~19C 강릉 鄉儒의 爭端과 향교의 역할」, 『역사민속학』 43,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
- 임호민, 「조선시대 향촌조직 결성의 양상과 추이 고찰-강릉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사학』 27, 강원사학회, 2015.
- 장정룡, 「일제강점기 강릉고적보존회 역할과 고전출판」, 『강원학비전포럼자료집』, 강원발전연구원, 2006.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1, 현암사, 2004.
- 한길로, 「일제 말 지방 유림의 동향과 친일시의 국면-강릉 유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60, 성균관대인문학연구원, 2016.

Abstract

The Change of Gangneung Hyanggyo and Its Role in the Community(1894~1945)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Hwasan School-

Ahn Se-hyun*

In this paper, I tried to explore the changing patterns of Gangneung Hyanggyo and its role in the community from 1894 to 1945.

In 1894, following the ac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 in Hyanggyo was virtually suspended. However, Hyanggyo continued to serve as an exchange space for local Confucian scholars while maintaining the ritual function. In particular, Gangneung Hyanggyo maintained its reputation as an educational and academic institution by holding lectures, exams and other events.

I particularly noted the process of setting up a Hwasan school in 1908. I have rediscovered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rack record of Jeong Hyeon-dong, who led the school's establishment. Hwasan school offered traditional Confucian education, and in this regard that were different from Western modern schools. For this reason, people who pursued Western studies and founded modern schools opposed the establishment of Hwasan school.

【Key words】 Gangwond-do, Gangneung Hyeokgyo, Hwasan School, Jung Hyun-dong, Cho Ik-hwan, Record of Hwasan School

투고일 : 5월 20일, 심사완료일 : 6월 10일, 게재확정일 : 6월 12일

* Associate professor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shahn@kangwon.ac.kr